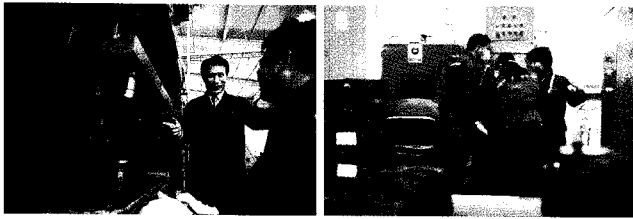


창조와 스피드로!
모두에게 행복을!
다성테크

보통 전라도 사투리로 '질경이'라 불리는 질경이는 한약 재료로 많이 쓰이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자동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흔히 피어 끈질기게 살아남는 생명력으로도 유명하다. 3년간 고진(苦盡)을 이겨내고 조금씩 감래(甘來)하는 다성테크의 모습에서 질경이의 강한 생명력을 엿보았다.



스테인리스 이중링 관이음쇠를 생산하는 한편 세계 최초로 회전식 건(GUN)을 이용한 이중링 원형 압착공법을 개발한 다성테크가 설립된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쇠도하는 주문을 전량 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이천으로 공장을 이전한 다성테크는 한번 출고한 제품에 평생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위풍당당한 회사이다.

“회사의 역사는 짧지만 저희 직원들은 동종 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실력을 모으면 100년 역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이중링 타입의 관이음쇠 제품의 역사는 22년 남짓이다. 다성테크는 10년 넘게 제품 개발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회사로 노하우만큼은 타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업계 최초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얻어내

“스테인리스 이중링 관이음쇠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제품인데, 이를 시공하기 위한 공구가 무겁고 사용이 불편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다성테크는 무게나 시공 방법 면에서 기존 제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다성테크의 주요 생산품이기도 한 스테인리스 이중링 프레스식 배관재인 ‘SP-JOINT’와 압착용 공구는 개발 당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고, 관련 기술이 2008년에만 특허 8건을 취득할 정도로 독보적인 신기술이었다.

“스테인리스 이중링 프레스식 제품은 KS나 단체 규격이 없는 특허 제품이었기에 그동안 제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 업계 최초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을 취득하면서 업계 표준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유석현 공장장은 관이음 압착 공구나 누수 시험용 캡 등 상용화된 다수의 제품에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다성테크의 제품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지녔음을 강조하였다.

SP-JOINT를 보면 시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접합 부위 시공 확인 필름이 장착되어 있다. 고무링은 압착 때 이중공구 간 마찰을 완화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압착 공구의 간편화에는 피로 누적에 따른 시공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이렇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실행해 옮긴 다성테크는 2006년 5월 공장을 설립한 후 실제 제품을 생산한 3개월 동안 매출 3억원으로 출발하여 2009년에는 매출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조와 스피드 경영으로 모두의 행복 추구

다성테크의 제품은 전국 16개 대리점을 통해 주공, 현대, 현대산업개발, 대우, 포스코 등 국내 38개 주요 건설사의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에 두루 사용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초기 마케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지도 부족으로 좋은 제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지만 전 직원의 고군분투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규모에 비해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는 관이음쇠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명용 대표는 기존 시장에서만 경쟁하기 보다는 시장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남다른 생각을 했다.

기존 급수·급탕 라인을 넘어 난방 라인과 더 나아가 소방 라인에 스테인리스 이중링 관이음쇠를 사용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새로운 수요 시장이 창출되는 셈이다.

사무실 한편에는 ‘창조와 SPEED 경영으로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문구가 창업이념으로 적혀 있다. 창조와 속도는 상충되기도 하지만 기업 성장을 위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덕목이다. 거기에 이명용 대표는 내부 고객인 직원들 그리고 외부 고객인 주주와 소비자들의 행복까지도 생각한다고 했다.

행복이 바탕이 된 제품이야말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성테크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